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9월 6일(주일) 제1064호

회복축제 'The 기쁨' 막 오른다!

9월 9~1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 진정한 기쁨 되찾는 축제의 장
주강사 짐 와일더 박사, 에드 코리 목사, 전문의 칼 레이먼

드디어 회복축제 'The 기쁨' 이 막 오른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에서는 '기쁨의 회복축제'를 주제로 9번의 강의와 '임마누엘 테라피'를 주제로 5번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기쁨을 회복하는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場)이 펼쳐진다.

치유와 회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강

사로 나선다. 짐 와일더 박사(세퍼드하우스 대표), 에드 코리 목사(국제약물남용과중독연합 사무국장), 칼 레이먼(정신과 전문의)이 그 주인공들이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사랑채버, 예꿈뮤지컬팀, 건강전도사 정주호, 목회자콘서트, 난타팀 등 다양한 게스트들도 출연할 예정이다. 회복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성도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참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1200명이 등록을 마쳤다. 9월 8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이번 회복축제 'The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355, 02-570-75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짐 와일더 박사



에드 코리 목사



칼 레이먼 정신과 전문의

내일부터 리더십 새벽기도회 시작

9월 7~26일 ... 캠퍼스별 새벽예배 시간과 동일

내일(7일)부터 리더십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9월 26일까지 각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시간은 캠퍼스별 새벽기도 시간과 동일하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할 예정이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락방장, 순장,

총무, 사역팀장 등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

리더십 새벽기도회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기도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을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이번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Build up'

9월 26~28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이 9월 26일부터 2박3일 동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열린다.

'Build up'을 주제로 진행되는 추석연합

집회에는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인 봉사자 130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아치트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3337-3327

2015 핏볼디아스포라선교대회

9월 27~29일 핏볼선교센터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2015 핏볼디아스포라선교대회'가 9월 27~29일 핏볼선교센터(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주제는 'Vision, Mission, Response'다.

핏볼디아스포라선교대회는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행사다. 한인 쪽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깨어주는 의미 있는 대회다.

이번 핏볼디아스포라선교대회에서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이와 한국무용단, 샌드애니메이션, 소프라노 김영미, 한중사랑문예팀 등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비는 7만원이다.

/ 김미림 기자



“보이지 않는 눈에 나를 가두지 말고...”

장애 딛고 일어나 새벽예배 섬기는 이효진 자매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정말 그런 줄 알았다. 다음 날 안과를 찾았다. 예상과 달리 나는 응급 환자였다.”

이효진 자매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며 오히려 기뻐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내는 그녀는 마치 한 떨기 꽃 같았다. 이효진 자매는 길공동체 홀리스타(새벽예배) 팀장으로 1년 째 섬기고 있다. 길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다. 그녀와 나는 대화에는 아픈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때 그 슬픔을 회고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녀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이효진 자매는 3남매 중 맏이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 시절 쉽사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도 많이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와 더 멀어졌다.

“말 그대로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그래도 친하지 않았던 교회와 더 멀어졌어요.”

그녀는 무역 관련 업무를 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한 성격 탓에 부모님이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원하는 일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무역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공을 키웠다.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다.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해외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화식이 잦았다. 술 마시고 깨기를 반복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녀가 일하는 부서는 신중함과 추진력이 필요한 곳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던 그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다 당시 다니던 회사 동료의 권유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나이 29세였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다니던 안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응급환자입니다. 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망막박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다. 망막박리가 뭔지도 몰랐다. 처음 들은 생소한 단어가 그렇게 큰 공포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의학용어를 찾기 시작했다. 망막박리는 망막과 유리체가 만나는 부위에서 유리체가 망막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망막이 찢어진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동역자들과 함께(왼쪽 두번째)
▼ 이효진 자매가 기록했던 영성일기

망막이 눈 뒤쪽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처음 수술 경과가 좋았다. 첫 수술 이후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 무리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1주일 정도 회사를 쉬고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다. 배워보고 싶었던 마케팅 분야 회사로 이직도 했다.

그런데 2012년 또 한 차례 고비가 찾아왔다. 다니던 회사가 예기치 않게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 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눈에 또 문제가 생겼다. 망막박리가 재발했다. 또 수술을 받았다. 수술보다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치료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다. 끔찍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의사가 알려준 자세만 취해야 했다. 눈에 충격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엎드려 지내야 했다. 외부 활동은 완전히 금지된 상태였다. 의사말대로 3~6개월 동안 절대 안정을 취했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1년 동안 수술을 4

차례나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간호하느라 많이 지쳤던 모양이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수술을 받았으니 오죽했을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효진 자매가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 말이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공동체 순모임은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다.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녀는 2013년 봄부터 공동체 생활을 차츰차츰 시작했다.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도 만났고, 생활의 안정도 되찾았다. CDC(순장교육)

를 수료하고 순장으로 섬기고, 처음으로 아웃리치도 갔다.

“당시 아웃리치에 함께 한 동역자들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해 겨울부터 홀리스타(새벽예배) 자막 봉사자로 섬겼다. 명동 홀리스타에 가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그 편안함이 그녀를 기도 처소로 이끌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5시 10분에 집을 나서기 위해 체력을 길러야 했다. 부단히 애를 썼다. 그 수고로움을 견뎌낸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줄 법한데 그녀는 모든 것은 동역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뭏든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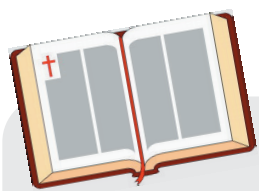
“인생의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순전히 길공동체 지체들의 격려와 사랑 덕분이에요.”

이효진 자매의 헌신은 여주 교도소 블레싱 사역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제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다. 내성적이던 성격 탓에 남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던 그녀가 달라졌다. 지난해 이맘때부터는 길공동체 담당 김영창 목사의 권유로 홀리스타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녀의 신앙과 헌신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영성 일기를 써 내려간다. 그 일기장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나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자.”

하나님도 그녀가 무척 예뻐나 보다. 정말 큰 선물을 주셨다. 홀리스타 팀장으로 섬긴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녀의 눈과 영혼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이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써 내려갈지 기대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6~13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확신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십시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13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성도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립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어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차이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회자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확신은 꽃과 같다. 뿌리 없는 꽃은 있을 수 없지만 꽃이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있다. 믿음이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다고 한다면, 확신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고백했던 스테반과 같다. 믿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던 강도와 같다면, 확신은 온몸이 다 핏물에서 만지터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던 욥과 같다. 믿음이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베드로와 같다면 확신은 훗날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다’고 외쳤던 것과 같다.

믿음이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던 떨리는 음성과 같다면 확신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하

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음성과 같다. 믿음이 다메섹의 유다 집에서 눈이 먼 채 홀로 외롭고 충격과 슬픔에 잠겨 기도하던 사울과 같다면 확신은 연로한 죄수의 몸으로 자신의 무덤을 생각하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다.”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확신의 믿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믿음에도 주어집니다. 가장 작은 믿음도 가장 큰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도 뿌리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창 15:5-6).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는 구절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구절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 별을 보여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라에게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양자를 들이는 방법으로 대를 이어 가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의 믿음은 시청각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봐야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직 확신도 없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 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고 징조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확신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생을 믿는 것과 확신은 다르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불신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 것과 확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판 차록(Stephen Chamock)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 다.

“믿음은 마음에 새겨졌으나 먼지로 잔뜩 뒤덮여 입을 수 없는 편지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먼지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읽지 못한다고 해서 증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신 없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나의 의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확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민스터의 신앙고백 문답 81번째 내용

입니다.

“모든 진실한 신자는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진실한 신자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요일 5:13), 확신을 얻은 후에도 혼란과 죄와 유혹과 실족으로 인해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한다(시 77:7-9, 8:31-32). 그러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절망에는 이르지 않는다”(시 73:13-15, 23, 요일 3:9, 사 54:7-11).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얻은 성도라도 유혹과 죄와 실족함으로 혼란함으로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 상실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얻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완전히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결여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사상의 5대 핵심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를 TULIP이라는 약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Total depravity and inability), 둘째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셋째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다섯째 성도들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넘어지지만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한 눈에 보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

차세대 영성 관리에 집중 ... 영역별 맞춤 프로그램 선보여

이번 학기 온누리교회 차세대 양육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특별해 보인다. 차세대사업본부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삶을 나누는 장을 제공하고, 자녀와 부모가 신앙으로 연결되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

드는 신앙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반기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영성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차세대들의 영성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이번 학기의 비전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연령대별로 특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예꿈(영유아유치)영역에서는 꿈아이놀이터, 예꿈놀이학교, 영어놀이 학교 ‘드림씨드’, 말씀 암송 훈련학교 ‘사아닝키즈’가 문을 연다. 찬양과 율동 전문 특수팀 예꿈 뮤지컬팀도 개강했다. 꿈땅(초등학생)영역에서는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키즈JDS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키즈JDS는 선교하는 바울학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파워웨이브(중·고등학생)영

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7up’을 준비하고 있다. 7up은 오전 7시 학교 앞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여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축제 ‘토요패션’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청소년 일대일 스쿨도 곧 개강할 예정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5년 차세대 영역별 주요 프로그램

예수님의 꿈아이							
공동체	프로그램명	대상	개강날짜	시간	장소	문의	수업내용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36개월-60개월	9/16(수)	오전10시40분	꿈아이홀	02-3215-3521	성경생활 습관
			9/8(화)	오전10시40분	꿈아이홀	02-570-7548	성경생활 습관
도곡	드림씨드	24개월-7세	9/17(목)	오전10시30분	꿈아이홀	02-570-7553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어 놀이
서빙고	예꿈놀이학교	20개월-40개월	9/19(토)	오전10시30분	신관 201호	02-3215-3521	유아를 위한 놀이
			-	오전10시30분	꿈아이홀	02-570-7548	나, 직업, 선교, 성품, 자연 주제교육 및 놀이
서빙고	사이닝키즈	6-7세	9/12(토)	오전10시	꿈아미홀	02-3215-3521	성경 핵심 구절 암송
			-	오전10시	사이닝홀	02-570-7548	말씀 암송 학교
서빙고	예꿈학교	7세	-	오전9시50분	꿈아이홀	02-3215-3521	십계명 중심 유대식 토론회 교육
서빙고	예꿈뮤지컬	6-7세	-	(목) 오후4시 / (토) 오전10시	꿈아미홀, 302호	02-3215-3521	찬양, 율동으로 예배, 뮤지컬 특수 연습
서빙고	예꿈부모교육	주중프로그램 참석 학부모	9/12 (토)	오전11시	비전홀	02-3215-3521	영성, 독서 교육, 테필린, 기독교 세계관, 성경 육아
꿈이자라는 땅							
서빙고	사이닝키즈	초1-4학년	-	오전10시	누리홀	황연선 코치(010-5442-8639) 심윤경 총무(010-3630-5966)	예배,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암송(5장), 소그룹
서빙고	파워키즈	초2-6학년	-	오후2시	꿈아미홀, 301호	김효은 교사(010-8896-3123)	위선댄스, 뮤지컬 교습
서빙고	키즈JDS	초5,6학년	10/10(토)	오후2시30분	3층 드림홀	02-3215-3525	구원의 확신, 세계관, 비전, 중보기도, 예배, 선교
양재	키즈뮤지컬찬양팀	초3~6학년	9/12(토)	오전10시	비전홀A	이정미 코치(010-2391-2384)	강의(예배, 큐티, 선교, 문화, 세계관, 중보기도)
파워 웨이브							
서빙고	토요패션	중,고생	-	오후6시	신관5층 경찬홀	02-3215-3523	예배, 부흥집회
양재		중,고생	9/19(토)	매일 셋째주(토) 오후6시	화평홀	02-570-7553	청소년 성령집회
서빙고	성경읽는 에스라 학교	중,고생	10월중	부서별	부서별	각 부서 교역자	성경 읽기와 강해
서빙고	Frontier Teens	중,고생	10월중	(토) 오후3시	콘서트 홀	02-3215-3523	선교 훈련
양재	중등부 봉사활동	중학생	9/12(토)	오전9시	온누리중앙센터	02-570-7553	어르신 도우미 및 자원봉사
양재	중등부 교리학교	중학생	10/10(토)	오전9시	중성홀	02-570-7553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기본교리
서빙고	선교하는 바울학교	중,고생	10월중	부서별	부서별	각 부서 교역자	선교 훈련
양재		중,고생	10/17(토)	오후4시	민음홀	02-570-7553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
양재	7up	중학생	9월 둘째주	오전7시	해당 중학교 부근 카페	02-570-7553	청소년 큐티 배움과 나눔
양재	청소년 일대일	고등학생	9월 중순	개인별	양재	02-570-7553	청소년 일대일 교육
캠퍼스							
부천	예꿈뮤지컬	6-7세	9/6(일)	오후2시	민음홀	정홍선 코치(010-2216-2580)	뮤지컬 강의 및 연습
	키즈JDS	초 4-6학년	10월 초 모집예정	(토) 오전10시	비전홀 (자동차 백화점 508호)	엄기화 코치(010-8909-3905)	기도&QT훈련, 아웃리치
	파워키즈	초 1-6학년	9/6(일)	오후 3시30분	자동차 백화점 507호	김관숙 코치(010-5287-6515)	예배 훈련, 위선댄스 강의
수원	꿈아이놀이터	24개월-40개월	9/15(화)	오전10시20분	드림홀	박은자 전도사(010-2638-4831)	영어 말씀 교육
	사이닝키즈	6세-7세	-	오전10시	소망홀	강병천 전도사(010-8817-4743)	말씀암송
	어와나	8세-11세	-	오전10시	조이홀, 사랑홀	권효정 전도사(010-9208-2746)	말씀암송
	키즈JDS	11세-13세	10/24(토)	오전10시	경찬홀	김기태 전도사(010-2959-4768)	제자훈련
	학교중보기도	14세-19세	-	학교별	중고등학교	한대우 전도사(010-8904-3044)	큐티, 기도
	마더와이즈	차세대 교사 및 학부모	10/10(토)	부서별	부서별	김은하 전도사(010-6249-9898)	성경공부
	부모교육	차세대 학부모	10/11(일)	미정	민음홀	김종아 목사(010-8945-8565)	자녀 양육
대전	수요어머니기도회	차세대 자녀를 둔 어머니	10/7(수)	오전9시30분	비전홀	042-825-3642	기도회
	마더 와이즈	차세대 자녀를 둔 어머니	10/22(목)	오전10시	비전홀	042-825-3642	주제 성경공부
	YDS	중,고생	10/24(토)	오전2시	비전홀	심형보 전도사(010-8995-9076)	예수님 제자로서의 기본 영성훈련
남양주	부모교육	차세대 교사 및 학부모	9/19(토)	오전8시	기쁨홀	031-565-9687	자녀 양육
		차세대 교사 및 학부모	10/11(일)	오후2시	꿈땅홀	031-565-9688	자녀 양육
		차세대 교사 및 학부모	10/24(토)	오전8시	꿈땅홀	031-565-9689	전도
인천	헤븐리키즈	6-13세	9/6(일)	오후2시	Acts29홀	이하니 전도사(010-4412-8381)	어린이 영어예배
	예배하는 다윗학교	중,고생	9/19(토)	오후4시	경찬홀	김요한 전도사(010-3005-7920)	예배 훈련
	선교하는 바울학교	중,고생	11/15(일)	오후4시	경찬홀	김요한 전도사(010-3005-7920)	선교 훈련
강동	사이닝키즈	7세-초등6학년	9/20(일)	오전9시20분	10층 드림홀	서정희 교사(010-8228-0409)	예배, 잠언 암송, 소그룹활동
	키즈바이블	7세-6학년 및 학부모	10/17(토)	9:30-11:00(3주간)	10층 드림홀	이화진 총무(010-7404-1301)	신나는성경탐험 : 창세기-신명기
	에스라학교	중,고생	10/10(토)	4주간	11층 화평홀	안은경 총무(010-9272-1268)	성경 강의 및 통독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을 말하다

차세대 교역자 5명이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을 논했다.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의 글에는 2015년 하반기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지가 담겨있다.



아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교육



노희태 목사
(차세대 본부장)

평균적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고작 12분밖에 되지 않는다. 길면 20분 정도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사와 자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원하지만 시간이 없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러는 시간도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시간다툼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리 교육을 시작한다. 내년에

는 차세대를 위한 맞춤 일대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세대들이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차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말씀과 예배 안에서 신앙이 뿌리내려야 한다. 성경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틀을 만들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품은 세 가지 비전이 있다.

첫째, 삶을 나누는 장(場)이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10가지 주제를 선정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경, 정체성, 성령, 세계관, 권위, 믿음, 도덕성, 선교, 우정, 제자가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은 이 10가지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나누는 다. 이제 말씀을 주입하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 아이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누군

가와 신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아이들과 깊이 있는 나눔의 장(場)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둘째, 차세대는 신앙의 연결고리다. 현대사회는 부모와 아이의 신앙이 단절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신앙과 삶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니 답은 하나였다. 아이들에게는 담고 싶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앙의 깊이와 고민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만큼 성장기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와 자녀가 좋은 관계가 맺으면 자연적으로 신앙의 유산이 전수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담고 싶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셋째, 차세대의 모든 프로그램은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차세대 예배를 드리다보면 부모의 예배 시간에 쫓기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와 덩달아 아이들도 분주해진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추억이 생긴다. 그 관계와 추억이 회복과 변화를 가져온다.

차세대 사역은 아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가 성숙하면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18세 이전에 세계관이 성립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다. 그 이전에 차세대 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아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한 줌의 빛이 되고 있다



최희중 목사(서빙고 중고등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접촉점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200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파워웨이브의 대표적인 사역은 '7up(Seven up)'과 학교심방이다.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다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대일로 만나는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7up(Seven up)은 학교 앞에 찾아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학교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큐티 모임이다. 이 큐티모임을 통해 한 발자국씩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7up 큐티모임에 왔던 청소년들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토요 패션 집회'에도 참석한다. 7up이 청소년들이 예배 장소로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소통과 나눔이 갈급한 청소년들에게 한 줌의 빛이 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신앙이 성장



정현석 목사(서빙고 초등부)

어릴 적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예배에 입고 갈 옷을 미리 챙겨주시던 부모님 생각이 난다. 우리 부모님은 양말과 신발을 꺼내주시면서 주일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셨다. 신앙 교육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초등1부는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린다. 매주 주일이면 전쟁이다. 지각하는 아이, 부모와 허겁지겁 뛰어오는 아이, 슬리퍼를 신고 오는 아이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초등1부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예배 시간에 복장을 단정히 입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캠페인이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다. 이제 웬일인가. 아이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장을 단정히 입고 오는 것은 물론 8시 50분까지 도착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부모와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다.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기다려주고, 자라도록 도와준다



이재원 목사(양재 영유아부)

지난 5월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정예배 지침서를 배부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따뜻함을 선물하는 게기가 됐다.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습관화시키는 목적이 담겼다.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배운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기쁨을 느낀다. 아이들에게 찬양과 기도를 알려주고, 소그룹 활동에서 나누는 내용을 지침서에 담았다. 그것이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첫 걸음이 되었다. 어느 날

집에서 밥을 짓다 깨달은 것이 있다. 밥솥에서 밥이 되려면 뜸 들이는 시간까지 합쳐 30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밥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만큼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자라도록 끝까지 돕는 곳이다.

미래의 꿈을 담은 곳



김종아 목사(수원 차세대)

매주 토요일이면 수원 온누리교회는 아침부터 차세대들로 북적인다. 부모를 따라 새벽예배를 온 차세대, 말씀 암송하러 온 사이닝키즈, 학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러 온 청소년들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차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교육과 세대 간 교육은 공통분모다. 차세대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신앙교육과 세대 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캠퍼스 차세대사

역은 본부와 소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좋은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팀 사역이야말로 캠퍼스 차세대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으로 차세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호응하고, 소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사명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꿈을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선교 30주년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4. 나는 선교사입니다

2000선교,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개최 10월 2~11일 ...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축제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선교 30주년이다. 온누리교회 태생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선교와 온누리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온누리교회 선교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10월 2~11일 막 오르는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2000선교본부는 "교회창립 30주년과 발맞춰 선교사의,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4주 동안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찬란한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와 주역들의 이야기를 심층 보도한다.

/ 정형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사가 스리랑카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는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이하 선교 대회)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2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선교대회는 한 마디로 열방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재충전 시간이다. 선교사의,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교대회 첫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의 건강검진이다. 9월 하순부터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타국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료도 해줄 예정이다.

10월 2일(금)에는 선교대회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된다. 21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번 선교대

회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결연한 공동체 순예배에 참석한다.

10월 3일(토)에는 온누리 선교 기관 연합모임이 있다. 2000선교본부를 비롯해 두란노해외선교회(TIM), Acts29 비전발리지, 온누리미션, 더멋진세상, CGNT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알대일사역본부 등 온누리교회 선교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융합선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4일(주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예배를 드린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는 융합선교 홍보 부스가 설치된다.

10월 5일(월)부터 이틀 동안은 선교사 수련회를 간다. 휴식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7일(수)부터 이틀 동안은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10월 9일에는 순장영성 수련회에 참석한다.

10월 10일(토)에는 경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

방 탁구대회가 개최된다. 공동체와 캠퍼스 간 연합 및 해외 선교를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열방 탁구대회에는 외국인 이주민 성도, 전·현직 국가대표 탁구선수들이 참석한다. 열방 탁구대회

참가비 일부는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10월 11일(주일)에는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성인예배에서 간증을 한다.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일정

예 배	내 용	장 소
10월 1일(목)	선교사 건강 검진	하나로 의료재단
2일(금)	30주년 선교 대회 오리엔테이션	서빙고 비전홀(예정)
3일(토)	온누리 선교 유관기관 연합모임	서빙고 비전홀(예정)
4일(주일)	융합 선교 홍보 부스 설치	서빙고/양재 캠퍼스
5일(월)~6일(화)	선교사 수련회, 심과 선교적 부르심 재확인	장소 미정
7일(수)~8일(목)	선교 세미나	서빙고 두란노홀(예정)
9일(금)	순장영성수련회, 올라라 한반도여 참석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0일(토)	열방 탁구대회	경기고등학교 체육관
11일(주일)	전 캠퍼스 선교사 간증	전 캠퍼스 주일예배



목회칼럼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앞두고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연다. 현장에 서 5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 21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고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검진, 30주년 부흥집회 참석, 선교사 수련회, 선교 기관 연합모임, 탁구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순예배와 주일예배에서 선교현장의 이야기들도 들려줄 것이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영성을 따라 선교지로 가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다. 선교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

행전 28장을 열방 곳곳에서 쫓아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영적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비전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비전이다.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가 함께 쫓아내려갈 비전을 재확인하고, 재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0월 6일 저녁에 진행될 부흥축제 주제가 선교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 오신 일들을 감사하고, 회고하는 자리인 동시에 향후 30년 온누리교회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선포하는 장(場)이 될 것이다.

2000선교본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선교

는 각 부서와 단체,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온 선교였다면 이제는 융합하고 협력하는 선교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모델, 이 바로 융합선교다. 이 일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2000선교본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더불어 의논하며 전략을 다듬어 왔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다듬은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선교사님들과 의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은 문화와 장소에서 고군분투하다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모처럼 따뜻한 푸근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선교사

들은 외롭다. 낮은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심리적 압박도 크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 상하고, 잊히고,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자 한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선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엔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고생하셨다며 등을 두드려 주면 좋겠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주면 정말 좋겠다.

30~40대 젊은 부부 위한 맞춤형 공동체

서초D, 강남D, 푸른누리 ... “신앙생활의 즐거움 찾아드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10년”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겠는 말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바쁘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 양육하느라 정신이 없다. 신앙생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인 30~40대 젊은 부부들을 주목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개순원(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이 되기 일쑤였던 젊은 부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신선했다. 그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서초D(담당 양성민 목사), 강남D(담당 정재욱 목사), 푸른누리공동체(담당 이상진 목사)다.

서초D공동체는 서초A, 서초B, 서초C공동체의 젊은 부부들이, 강남D공동체는 강남A, 강남B, 강남C공동체의 젊은 부부들이 주축이 됐다. 푸른누리공동체는 서초공동체와 강남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의 젊은 부부들이 중심이 됐다. 45세 미만이거나 미취학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부도 대상이었다.

맞춤형 공동체의 유익

서초D공동체 리더십들을 만나 30~40대 젊은 부부들을 위한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모든 젊은 부부들의 의견을 웅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젊은 부부들을 위한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서초D공동체 리더십(이동엽 순장, 이상욱 순장·김신주 순모, 황윤일 파택장로·박경주 권사, 정용주 다락방장)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부부들이 교회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고 있었



서초D공동체 리더십들. 왼쪽부터 이기성·박수연 부부, 이상욱·김신주 부부, 양성민 목사, 정용주 다락방장, 황윤일·박경주 부부, 이동엽 순장.

다. 이상욱, 김신주 부부는 서초A공동체에서 서초D공동체로 옮겨 왔다. 김신주 성도는 서초D공동체로 옮겨 가는 것이 처음에는 싫었다고 한다.

“서초A공동체에 있을 때에는 섬김을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어. 그런데 서초D공동체 리더십으로 섬기라는 이야기 듣고 걱정이 앞섰어. 마치 섯방살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녀가 변했다. 젊은 부부들에게 자신이 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순모임을 위해 식탁도 큰 걸로 바꾸고, 그릇도 사고, 커피머신도 샀어.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뻐요”

황윤일 파택장로는 “젊은 부부들이 나이차가 많이나는 성도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다 보면 위화감

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중장년층은 젊은 부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다. 교회 직분도 높다. 이로 인한 고리감과 위화감이 젊은 부부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육아나 직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또래가 없다는 것도 교회와 공동체에 발길을 끊는 이유다.

“젊은 부부들이 돌봄을 받고, 리더로 세워지도록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황윤일 파택장로와 서초D공동체로 함께 온 이기성, 박수연 부부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안개순원이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초D공동체로 옮겨 오면서 신앙 생활하는 재미가 들렸다.

“공동체 생활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서초D공동체에서 배웠습니다.”

정용주 다락방장은 싱글들을 위한 순을 맡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성인공동체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서초D공동체뿐만 아니라 강남D, 푸른누리공동체도 젊은 부부들을 위한 공동체답게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 탁아방을 운영하면서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야근이 잦은 젊은 부부들을 위해 순예배를 토요일 오후에 드리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 순모임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젊은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양성민 목사(양재 서초D공동체 담당)

온누리교회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많다. 성령 충만한 예배, 살아있는 말씀,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무엇보다 젊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양재 차세대 예꿈(1,300명)과 꿈땅(1,000명) 예배에 가보면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공동체 순모임, 개강예배와 종강예배, 공동체 아웃리치에서는 젊은 부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적 요인을 먼저 짚을 수 있다.

바쁘고 경쟁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바쁘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정말 바쁘게 지낸다. 삶에 지쳐 주일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 상

황이다. 결혼하고 성인공동체로 옮긴 이후에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부부들이 순모임에 한두 번 참석했다가 안개순원으로 숨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 대부분이 어린 자녀와 함께 순모임에 참석하는데 아이가 울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참 난감하다. 순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순 배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안타까운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

서초D공동체는 직장과 가정, 육아 등으로 지쳐있는 젊은 부부들을 양육하기 위해 서초A, 서초B, 서초C공동체에 소속된 45세 이하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올해 초 설립됐다. 젊은 순장과 리더십을 세우고 젊은 부부들을 교회의 충

성된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아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서초D공동체 리더십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순장수련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했고, 젊은 순원들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와 강의도 들었다.

서초D공동체 첫 아웃리치도 다녀왔다. 몽골에서 의료사역(600명 진료)과 어린이 사역, 이미용 사역을 했다. 아웃리치에 참가한 대부분의 지체들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해외 아웃리치였다.

이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아웃리치를 가지 않아도 50~60대 중장년층 리더십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굳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힘

들게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도전이 되기도 했다. 몽골 아웃리치 다음 주에 있었던 국내(포항) 아웃리치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아웃리치를 통해 경험한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나는 심방을 통해 공동체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 가을학기에는 큐티 베이직 세미나와 일대일 양육자반을 두 반씩 개설해 양육에 힘을 것이다.

젊은 세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새로운 모습의 순예배와 개강 및 종강 모임도 구상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을 섬기기 위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시도할 것이다.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씻고 싶었을까...”

서초C공동체, 마태복음교회와 함께 ‘노숙자 목욕봉사’

“얼마 만에 씻는 건지 몰라요. 몸도 마음도 개운해졌어요.”

지난 29일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만난 김수철(가명)씨가 목욕을 마치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김수철씨는 노숙자다. 이날 김수철씨 뿐만 아니라 노숙자 40명이 정말 오랜만에 목욕을 했다. 서초C공동체 덕분이다.

지난달 29일 서초C공동체가 목욕봉사를 했다. 노숙자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할 수 있겠지만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다. 서초C공동체 덕분에 목욕도 하고, 예배도 드린 노숙자들의 얼굴은 가을햇살보다 눈부셨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노숙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여기는 신길동에 위치한 한 목욕탕. 오늘 서초C공동체가 처음으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한다. 아직 목욕봉사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데 몇몇 봉사자들은 벌써 도착해 있었다. 이상우 집사도 목욕탕 앞에 도착했다. 조수석에서 말끔한 청년이 같이 내렸다. 자동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짐이 한 가득이다. 도착하자마자 이상우 집사와 그 청년이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봉사자들도 그들을 도와 짐을 옮겼다.

그 청년은 이상우 집사의 아들(이은창 21세)이다. 일본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목욕봉사를 왔다.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봉사를 다닌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늘 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남을 많이 돕고 계시고요. 삶으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집 꾸러미가 풀렸다. 남성용 속옷, 여성용 속옷, 세면도구, 현옷들이 한 가득이다. 봉사자들이 하

나하나 포장을 뜯어 새 종이봉투에 담았다. 포장된 채로 주변 뒤편에 저렇게까지 수고를 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서초C공동체는 노숙자들에게 물건을 나눠 줄 때마다 재정이 들더라도 새 봉투를 주문 제작해 담아주기로 했다. 서초C공동체가 진심으로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봉투에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목욕 시간이다.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다. 서초C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는 마태복음교회 회원용 목사가 노숙자들을 한데 불러 놓고 인부를 물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지난번에 다친 곳은 다나왔는지 살뜰히 챙겼다.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정성껏 포장한 봉투를 건넸다. 어느새 목욕탕 탈의실이 노숙자들로 꽂혔다. 많은 노숙자들이 한꺼번에 옷을 벗자 악취가

진동했다. 날씨가 답답해보니 냄새가 더 심했다.

“얼마나 씻고 싶었을까...”

악취가 진동한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노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 있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하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태복음교회는 지난해 겨울 목욕 봉사를 시도했는데 장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서초C공동체와 마태복음교회가 손을 잡고 목욕봉사를 시도하면서도 그 이유 때문에 염려가 많았다. 그

러나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담긴 후원 덕분에 목욕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씻는 노숙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토록 평안한 얼굴은 처음 본 것 같다. 악취가 진동하던 노숙자들에게서 꽃향기가 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말끔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한 노숙자의 간증, 최창수 장로의 간증, 김영배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간증과 설교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노숙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그들은 미소로 화답해줬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서초C공동체와 마태교회 지체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다.



칼럼 최창수 장로

사회선교는 천국 건강법

지난해 5월부터 서초C공동체는 재활인(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마태복음교회(영등포 소재)와 연합해 공활사역을 시작했다. 공활사역은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사역이지만 공동체가 고정적으로 공활사역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교회표어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다. 사회선교가 교회의 역점 사역이라고 선포된 만큼 우리 서초C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의 본이 되고 싶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재활인 사역은 양재 공활사역팀이 발굴해 일 년 정도 하다 서초C공동체로 이양되었다. 재활인 사역을 이양받기 위해 탐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역은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번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서초C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신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서초C공동체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다락방 1개씩 돌아가며 이 사역을 주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동체 중보기도팀과 리더십들의 많은 기도와 지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역이 탄력을 받았다. 부흥도 경험하고 있다. 영등포 공원에서 드리는 야외예배에 참석하는 재활인이 평균 40~5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 가까이 된다. 간증이나 공동체 소속 의료인들의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도 한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기도와 교제하는 시간도 보낸다. 간식이

나 생활용품 선물은 덤이다.

2년차로 접어든 사역은 순항 중이다. 양재 사회선교팀의 지속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자녀들까지 데려와 참여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자랑스럽다.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 리더십들의 헌신이 이 사역을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하나님께서 한내라고 동역자도 보내 주셨다. 타 교회 성도 4~5명이 매번 도와주고 있다.

올해 초 서초C공동체 개강예배에서 재활인 형제가 간증을 했다. 법대출신인 그 형제는 경비원 시험에 합격해 취업을 했다. 재활에 성공했다. 그 형제는 온누리교회가 재활인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

형제의 간증을 듣는 이들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다. 서초C공동체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사회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항상 일구고 가꾸어야 할 영혼의 텃밭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끄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사회선교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고, 영적인 비만을 예방하는 천국 건강법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면 사도 행전 28장이 어떻게 마무리 될까?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
‘네팔’바랏 목사, 만지라 사모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네팔 사람들은 다양한 생김새와 피부색을 갖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김새와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 반해 네팔 사람들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다.

네팔 사람들은 피부색으로만 구분 짓지 않는다. 네팔 사람들의 혈통은 두 부류다. 크게 몽골계와 아리우스계다. 아리우스는 4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종파이고, 아리우스계는 인도와 이란이 섞인 민족을 의미한다. 몽골리안과 아리우스계가 혼합된 민족이 네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다양한 민족이 섞인 땅이다. 그래서인지 종교도 두 개가 공존하는 나라다. 힌두교와 불교가 바로 그것이다. 힌두교인들이 사찰에 가서 참배 드릴 때 불교신자들은 힌두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문화가 있다. 모든 힌두교 행사와 불교 행사를 함께 기념하고 있다.

네팔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땅이기도 하다. 많은 부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의 손길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수도 카트만두에 집중되어 있다. 네팔은 카트만두가 전부 가 아니다.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일 뿐이다. 카트만두에만 선교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네팔 전체 인구를 전도할 수 없다.

네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루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 서라도 네팔에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사회와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해외로

네팔은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다. 공장이 없다. 네팔에 남아 있는 젊은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있다.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로 돈 벌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팔에 남아 있는 미혼 남성들은 가난과 싸우고 있다.

네팔에는 헌법이 없다.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위해 ‘세속의, 세속적인(secular)’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통 힌두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교회가 합법적이지 않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계속 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네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야만 사회와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약 4만 명의 네팔 사람들이 매년 한국에 온다. 그들 중 99%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네팔 사람 중 60%

예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지난달 16일, 네팔인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 네팔의 여신 쿠마리



▲ 힌두교 여성이 소에게 절을 하고 있다.

이상이 교회를 모르고, 5%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내에 온 네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충청남도 아산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한국에 오는 많은 네팔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도도 멈추지 않고 있다. 네팔의 많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루빨리 네팔이 복음화되기를 간구한다.



목회칼럼 정현석 목사(서빙고 차세대)

난봉꾼에서 목사로 변신한 청년

“내가 듣고 알고 경험했다고 믿는 복음이 과연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번 여름, 캄보디아 이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던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YES”라고 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캄보디아에서의 여정을 통해 열방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보여주셨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아주 특별한 형제가 있다며 깊고 깊은 시골마을로 우리를 데려가셨다. 아직 그 어떤 탐과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8시간 가까이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문란하기로 소문난 난봉꾼 ‘부은’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어느 날 그 형제의 배에 물이 차고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되어 수도 프놈펜으로 가게 되었다.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 때문에 낙심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이 성탄절이어서 진료를 하지 않았다. 잠잘 곳도 없었던 그 형제는 또 다시 낙심했다. “그냥 이렇게 시골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인가?” 하고 자포자기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음날 꼭 병원에 가보라며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찾아간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복수가 찬 그의 배를 보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산처럼 솟아있던 뱃속의 물이 전부 빠져나와 예배당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그 자리에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마을로 돌아온 그 형제는 자신을 위해 했던 기도를 기억했다. 그리고 간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형제는 난봉꾼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를 통해 마을에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말씀 한 줄 읽어보지 못했던 그 난봉꾼이 이제 목사가 되어 마을에 가정교회 12개를 세웠다. 40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합당하다.

선교사가 들어간 적 없는 곳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히는 마을에서, 단 한 사람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

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빛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예배도, 구제도,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켜진 등잔불이 부끄러워 그릇으로 덮어둔 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더 이상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펼쳐진 물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견딜 수 없다. 에너지로 채워진 물 분자들은 서로를 주전자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도 들쭉거린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220명의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 ‘오직 기도’

장로 220명 참석 ... 통회기도 및 주제별 중보기도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가 열렸다. 장로 220명이 한 데 모여 뜨겁게 부르짖었다.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는 정파종장로의 대표기도, 온누리장로합창단의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통회기도, 주제별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분야별 중보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통일,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 세계선교와 세계교회, 차세대와 거룩한 일터, 사회선교 활성화를 위해 부르짖었다.

고건 장로, 황의서 장로, 최도성 장로, 박순길 장로, 윤현덕 장로, 정대서 장로, 노흥규 장로, 박현규 장로, 정운오 장로, 임정렬 장로가 인도했다.

장로중보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회홀에서 열린다. 매월 첫 주 월요일에는 주제별 장로중보기도회가 저녁 6시30분에 서빙고 순회홀에서 개최된다.

10월 5일 열리는 주제별 장로중보기도회에서는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온누리 장로’를 주제로 강의 및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본인 9명,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지난 2일 수료식 ... “기회 준 온누리교회에 감사”

일본 시모노세키 교회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9명이 일대일 제자훈련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지난 2일 오후 7시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2호에서 일본인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식이 열렸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일대일 제자훈련 동반자반 과정을 수료한 일본인들이 주인공이었다. 동반자반 양육은 지난해 9월부터 27주 과정으로 진행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성도들이 맡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축사를 한 정호욱 목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동역자,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양육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설교는 일대일사역 본부장 이기훈 목사가 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양육해서 건강한 교회,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3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지적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가한 온사랑 합창단.

온사랑합창단 장려상 수상

제3회 전국 지적장애인 합창대회

온사랑합창단이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지적장애인 합창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온사랑합창단은 온누리복지재단 소속으로 2011년에 창단된 발달장애인 합창단이다. 학교, 병원, 교회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2명의 음악가들과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온사랑합창단을 지도하는 문소현 교사는 “찬양을 통해 지적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번 대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밝혔고, 임희재 부단장은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재정국 팀장 채용 공고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을 채용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안수집사로 재정관리와 회계업무 유경험자가 대상이다. 신양심이 깊은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이다.

이메일(changk58@onnuri.org)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장경식 장로(02-3215-3647)

나눔장터, 의류·생활·유아용품 모집

소외계층에 전달 예정 ... 봉사자도 모집

사랑의 열린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에서 의류, 생활용품(의류, 비누, 속옷), 유아용품 등을 모집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층 도서관 앞 기부함이나 선교관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부함에 물품을 가져다 두면 된다.

모집된 물품은 용산구다시서기센터, 햇살보금자리센터, 마태복음교회, (사)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신앙교회 등

에 전달해 소외계층을 후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봉사자도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8시30분~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다. 봉사시간은 조절 가능하다.

문의: 최혜옥 사역자 02-3215-3436, 나눔장터 02-3215-3648

/ 정현주 기자

하반기 전도폭발 개강

전도폭발이 개강했다. 주간반은 12월 15일까지, 야간반은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아직 신청을 못한 성도들은 주간반 9월 8일까지, 야간반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14

바로 잡습니다

8월 30일자 2면에 보도된 기사 중 ‘전도폭발 수료생’은 1천 명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동부노인요양센터 개원 10주년 감사예배

“예수님처럼 사랑 넘치는 안식처 되기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동부노인 전문요양센터가 지난달 28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10주년 감사예배에는 1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0주년감사예배는 조항진 장로의 기도, 박종길 목사의 설교, 기념영상

상영,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를 위한 축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누리복지재단 정호욱 상임이사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흘러넘치는 안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하합니다

이태훈 680704
전영학 730406

특별한 초대 세례명단

최승윤 741220
송송이 841027 양윤경 790102
문희정 790810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7일(월) 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 9월 8일(화) 오이타 교계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도록
- 9월 9일(수) 오이타 67개 교회가 서로 협력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 9월 10일(목) 1,900명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려 집회에 참석하도록
- 9월 11일(금) 목사님과 모든 출연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9월 12일(토) 오이타를 불붙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도록
- 9월 13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오이타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제1064호 | 2015년 9월 6일(주일)

■ 남양주 북한선교팀 하나캠프 후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방주혁 학생(남양주 온누리교회 북한선교)

남양주 온누리교회 북한선교팀이 하나캠프를 다녀왔다. 지난달 21일 아침 10시 캠프장소로 향했다.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지난 해에도 함께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번에도 우리를 즐겁게 해줬다. 운전기사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버스에 탑승하자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남양주 북한선교팀 한상천 팀장님이 우리를 환영했다. 사랑한다는 말이 괴근한 몸으로 달려온 우리들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큰 힘이 된 격려의 메시지였다. 일상을 탈출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는 정말 따뜻하고, 고마운 말이었다. 한 시간 반을 달렸을까,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만리포 해수욕장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둘러 앉아 특별한 점심을 먹었다.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따뜻함 그 자체였다.

하나캠프에 참가하면서 놀란 것이 많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이곳에 와서 탈북자 학생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것 아닌가.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는 신선함이 느껴졌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은 그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였다.

나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배려를 보고 깨졌다. 또 하나의 감동은 스테프들의 섬김이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몸소 실천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 방 배치, 식사준비, 프로그램 구성까지 섬세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주셨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우리를 배려해주고, 보살펴 준 덕분에 편하고 즐거운 캠프를 보낼 수 있었다.

다음 날에는 스테프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바다와 한 몸이 되어 뛰어도 하고 축구도 했다. 불꽃놀이, 장기자랑도 했다. 저녁에는 8월에 생일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했다. 윤지준 장로님의 간증도 이어졌다.

“여러분은 통일의 주역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간증과 기도 후에 이어진 찬양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2박3일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나캠프에 함께 참석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펐다. 캠프 이름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가장 큰 감동이었다.

“하나캠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J4U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그 뜻깊은 이야기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 최지선 자매(J4U공동체)

일이 너무 바빠서 올해 아웃리치는 짧게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달랐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제주도로 나를 이끌었다.

J4U공동체 제주도 신도교회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과 회복’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제사 자체가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기피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팀 내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연합해서 제주도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방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체들에게 더 많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아웃리치의 열쇠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원동력이 되고, 기도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웃리치 첫날, 현지 목사님과 미리 통화하면서 협조 요청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전혀 동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검진 일정과 우리의 의료사역 일정이 겹치면서 사역을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원래 남자 숙소로 예정되어 있던 마을회관 사용이 어렵게 되면서 장소를 경로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염색, 의료,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 저절로 홍보가 되었다.

성경학교도 준비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고로 재미있었던 성경학교였다는 말도 들었다. 가정을 방문해 전도도 했다. 여덟 명의 주민들이 사영리를 끝까지 듣고 영접기도도 하셨다. 매년 외출해서 고맙다며 인사도 해주셨다.

팀원들의 식사와 간식을 챙겨야 하는 식당 팀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가장 은혜가 넘치는 팀이었다. 생명의 복음을 담당했던 전도팀은 한 영혼이라도 더 품으려는 열정이 넘쳤다. 성경학교팀은 아이들 머릿속에 평생 기억될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선물했다. 이제 우리는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것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아웃리치를 갔으면 좋겠다. 올해 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 ‘온누리전도학교’ 개강을 앞두고....



/ 이정옥 집사

탁월한 사람 낚는 어부

어느 날 주님은 내게 옥토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시며 거리로 이끌었다. 나는 학교 앞 놀이터 등을 다니며 초·중·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거리전도는 내가 2008년 미국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 2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거리에서 아이들과 만났다. 거리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랜 세월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은 분명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증거다.

나는 본격적으로 전도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난 학기에 ‘전도폭발’ 훈련과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았다. 두 훈련 모두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했다. 두 훈련 모두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온누리전도학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강한다. 전도에 대한 강의와 전도책자, 전도전문을 접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누리전도학교는 1시간2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도의 실재를 상세하게 알려줬다. 군더더기 없이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전도책자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전도책자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 공감대를 이

끌어내기에 좋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번 암기해두면 전도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도현장에서 불시에 당하는 대상자들의 반대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법이 설명되어 있다. 팀원들과 함께 몇 차례 전도현장을 밟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보니 어느새 전도에 빠져들어 있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탁월한 전도훈련과 전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가는데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알려주는 ‘5분전도’와 ‘전도책자’를 사용하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학교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쉽고 재미있는 사역이다.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학교에서 배운 전도도구들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보자. 어느덧 당신은 탁월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 OBC(Onnuri Bible Club)에 참가합시다



/ 강미향 목사(OBC 갈라디아서 과정 담당)

말씀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

나는 OBC(Onnuri Bible Club) 갈라디아서 과정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됐다. 말씀이 삶의 기초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은 허공에 떠있는 것과 같다.

OBC교재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덕분에 성도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람 있다.

말씀은 성도들을 붙잡아준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이 많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먼저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었고 그 결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대인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고백들이 줄을 잇고 있다. 어느 집사님은 자신의 내면에 새살이 돋는 것 같다고 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말씀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성도들이 OBC 과정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OBC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했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씨앗이 세상의 변화시키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나도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마실 때까지 말이다.



장로칼럼 김상인 장로(과천의왕공동체)

나는 시니어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를 보내 주세요 이곳에 시니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3년 전 케냐 아웃리치를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칠순의 선교사가 나에게 부탁한 말이다. 그때 시니어 선교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나는 얼결에 뭇했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마침 인도에서 돌아온 동기 장로에게 케냐 선교를 권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또 다른 분이 없을까 주변을 살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

1년 좀 지난 어느 날 웬일인지 사는 게 마음 편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신앙이나 가정생활도 안정적이고, 건강도 좋은 편이고, 사역이나 봉사도 나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의 평안만을 위해 주신 구원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었다. 그렇게 이유 모를 불편함 속에 지난해 40일 새벽기도를 할 때였다. 시니어 선교단을 모집하는 CGNTV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케냐의 시니어 선교사님의 부탁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있어서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나보다.”

나는 바로 시니어 선교사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했다. 그 일을 계기로 ‘청춘선교단은 빛날까’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은빛날까’는 인생의 하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시니어 7명을 선출해 시니어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밟는 것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CGNTV 창립 9주년 특집 프로그램

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시니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웠다.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이 결단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곳에서 어린이학교를 섬기는 시니어, 농업선교를 하는 시니어, 학사 사역을 하는 시니어, 현지 교회를 섬기는 시니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비즈니스 선교하는 시니어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니어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을 위해 더욱 넉넉히 사용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기쁨으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굴레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10개월 동안의 훈련과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나는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마침 캄보디아 학생 40여 명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고 나는 이에 응했다. 그동안 배웠던 오키나와 강습을 통해 그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한국어를 가르쳐 취업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구체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 훈련을 마치고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오후 5시 같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시어 순종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권사칼럼 이명선 권사(과천의왕공동체)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지혜

“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할까?”

하나님이 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신발을 신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발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자동차를 타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노동형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대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언제까지 무병장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일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신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과와 속도에 몸과 영혼을 맡긴 채 정신없이 질주하면 적신호가 울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체의 원리를 잃어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생활 속에서 깨달은 세 가지 지혜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바르게 눕고, 앉고, 서고, 걷고, 뛰는 것이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자세는 척추와 장기가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매일 일정량 움직여야 한다. 매일

움직이는 것은 몸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해답이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소화와 혈액순환, 배설 등의 대사기능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듯 내 몸을 위해서도 운동하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몸을 사용했다면 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장거리 운전할 때 종종 휴게소에 들러 사람도 쉬고, 차도 쉬게 해준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쉬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피로와 노폐물이 쌓여 서서히 기능을 잃어갈게 된다.

나는 평소에 눈을 잘 돌보지 않았다. 그 덕분에 백내장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눈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 참으로 반성하고 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오늘도 나는 건강을 위해 양재천을 걷고 또 걸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고전 6:19-20).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J4U공동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왜 오셨을까? 목적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시되어 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생명이 풍성하다니. 오래 산다는 양(量)의 문제일까 아니면 잘 산다는 질(質)의 문제일까? 원어를 보면 이해가 쉽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zo)’다. 영적 생명을 뜻한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생기와 활력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다. 성장기 청소년처럼 역동적인 모습을 뜻한다.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피곤하고 지쳐있었다.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서는 발걸음이 힘겨웠다.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내 안에 설교할 힘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다. 찬양이 끝나고 강단에 올라섰다. 무엇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외부에서 부어지는 것이었다. 설교에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문장 문장마다 기쁨 부으심이 있었다. 그날 성도들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이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풍성한 생명이 좌절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힘을 주었다. 그 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교통사고와 암을 뛰어넘는다. 낙태율도 1위다. 죽음이 역사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과 무기력, 절망도 사망의 그림자다. 탄식이 나온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리고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뒷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때이므로 나라를 위해, 청년들과 차세대 위

해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새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육적 생명(프쉬케)은 사망에 삼켜진다. 그러나 예수님 약속하신 영적 생명(조에)은 죽음을 이긴다. 그 약속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선다. ‘풍성히 얻도록 주신다’고 하셨다. 그 약속은 겨우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말한다. 생명력과 활력과 생기가 넘쳐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희락과 화평이 열매 맺고, 창의와 도전의 열정이 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 필요한 생명이 교회를 통해 부어질 것이다.

J4U의 올해 표어는 ‘생명이 이기다’이다. 넘치는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활력과 생기가 샘솟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우울이 기쁨으로, 좌절이 열정으로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도한다. 그 기도대로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구원의 확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요 6:37).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요 10:28).

때로 확신이 흔들리고 확신이 상실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끝까지 건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얻는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 다. 그렇 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확신은 자기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순진하게 잘 속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이든 쉽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살피고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이 하

나님의 증거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믿음의 날개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9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 른 말로 하면 ‘증거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합니다. 물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의인하신 분이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은 물세례였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신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것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내는 바는 예수님이 행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증거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보험과 같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내가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돌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보

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 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 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 다”(엡 1:13).

성령님의 도장을 마음에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증거가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찍어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장에 오래 갇힌 새는 문을 열어줘도 날지 못합니다. 왜 나하면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날개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걷게 하는 것이라면 확신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벧후 1:10).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히 6:11~12).

이러한 노력이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임하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임하는 통로와 수단을 게을리 한 채 나에게 확신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사장 내, 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집회 장소는 서빙고성전 3층 본당(토요일 비전홀)입니다.
- 오전과 점심, 저녁시간에는 리허설 관계로 본당 출입이 통제 됩니다.(집회 30분 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시 개인물품을 휴대하셔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등록 시 받은 명찰을 항상 착용해주시시오. 미착용 시 출입이 통제됩니다.

▶등록

- 등록 시 명찰과 교재를 드립니다.
- 당일등록 가능합니다.

▶식사

- 행사 중에는 점심만 제공됩니다.(저녁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등록시 받은 식권으로 4일 동안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시오.

▶주차

- 행사 중에는 개인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촌역(-)교회 셔틀 운행(시간 내에 연속 운행)

장소: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탑승

시간: 오전 9:00~11:00

오후 5:00~6:30

오후 9:30~10:00

▶택아

- 운영시간은 오전 10:00~12:30, 오후 1:40~5:00, 오후 7:30~9:30 입니다.
- 점심 및 저녁시간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 택아방은 영유아실(36개월~초등3학년), 자모실(36개월 미만, 부모 동반)입니다.
-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외부 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의무실

- 본관 1층 러빙핸드실에서 간단한 구급약을 지급합니다.
- 지병 및 치료 중에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스

- 두란노에서 도서 및 영상/음반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문의

- 회복축제본부(02-3215-3355)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일정표

시간	9/9(수)	9/10(목)	9/11(금)	9/12(토)
09:00~	등록 및 접수			9:00~10:20 세미나 4
10:00~12:00	10:30~12:00 오픈강의	강의 3	강의 6	10:30~12:00 세미나 5
12:00~13:30	점심			
13:30~15:00	강의 1	강의 4	강의 7	
15:00~15:20	휴식			
15:20~17:00	강의 2	강의 5	강의 8	
19:20~21:30	세미나 1	세미나 2	세미나 3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심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후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지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과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2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 예배 14:3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를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분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15
장소: 서빙고 누리홀/양재 화평홀/도곡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들운동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서빙고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1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계절방학있음)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전공자나 한국어교육 경험자 우대)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CMN 마노아티م 국내사역 봉사자 모집

장소: 양평 단석교회
일시: 9월 20일(주일) 서빙고 11시 출발
사역: 의료, 미용, 한방, 경로사전, 발마사지,
전도, 도우미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팀장 송영주(010-3005-4787)
총무 홍진의(010-7236-4664)

CMN 라파티م 내과파트 진료의사 모집

일시: 매월 4째 주일, 16:00~18:00
(9월 진료 없음)
장소: 서빙고 라파 진료실
문의: 심형섭 총무(010-3227-9915)

대청 결혼 매칭 프로그램 iWe 8기 지

원자 모집
일시: 10월17일~11월7일(매주 토) 14~18시
대상: 온누리교회 형제 1977년~1983년생
온누리교회 자매 1980년~1985년생
신청기간: 9월 20일까지
신청: iweonnuri4u@gmail.com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전시

일시: 9월 9일~14일
장소: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십자가 안에서의 예술(Art in Cross)
참가: 온누리교회 아트비전 및 6개 기독교
미술인 협회
문의: 황해성 팀장(010-4876-2354)

샘물중고등학교 입학설명회

대상: 16학년도 기준 초등6~고1
일시및장소
(동백) 8/29(토) 15:00 샘물중고등학교
(서울) 9/03(목) 10:00 양재 온누리교회
(수지) 9/05(토) 15:00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광교) 9/09(수) 10:00 더사랑의교회
(분당) 9/12(토) 15:00시 샘물교회
문의: 031-714-7091, www.smca.or.kr

갈라디아서 목요 오전반(강미향 목사)

기간: 9월 17일~11월 19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12:30
신청기간: 9월 24일까지
문의: 010-8627-2098
장소: 서빙고 믿음홀
회비: 30,000원(교재비, 수련회비 포함)
계좌번호 : 하나은행 / 573-910006-73204
/ 온누리교회 갈라디아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분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갑넵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불어예배

설교: Martin Baboka(마르탱 바보카)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4336-0852, *통역 지원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세미나

일시: 9월7일,14일,21일,10월5일,19시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강사: 마르탱 바보카 목사(통역지원)
문의: 010-6348-8737

시니어아카데미

일정: 9월 16일~12월 9일, 매주 수,
11시~15시
장소: 양재 드림홀
회비: 5만원
문의: 김주혜 간사(02-570-7349)

양재 순장학교

일시: 9월 13일~12월 6일, 매주일
14:00~17:00
장소: 양재 드림홀(B1)
등록: 온라인(i-school) 및 오프라인
(목회지원실)
대상: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 이수한
온누리 성도
문의: 김상우 간사(02-570-7447)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학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11:30 / 유치부-오전9:00,11:30, 2:00
유년부-오전9:00,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새터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후) 매주 오전 11:30 경찬홀(204호)
영어 예배 어린이(IEEM) 오전 9:00 비전홀(508호)
성인 오후 2:30 비전홀(508호)

수원

031. 895. 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 6부 오후 7:00 (전양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어노인팅예배 매주 수 오후 7:45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유아부 오전 9:00, 11:30, 유치부 오전 9:00, 11:30
유년부 오전 9:00, 11:30, 초등부 오전 9:00, 11:30
중고등부 오전 9:00 비전홀, 믿음홀
영어예배 아동 주일 오전 11:30 사랑홀
중고등부 오전 11:30 믿음홀
성인 주일 오후 2:00 믿음홀

대전

042. 825. 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꿈(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 56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힌두관) 매주 주일 저녁 8시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집회 저녁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4층 미션홀
유치부 오전 11:30 5층 두란노홀
유년부 오전 9:00 4층 미션홀
초등부 오전 9:00 5층 두란노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3층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00 3층 기쁨홀

평택

031. 651. 9680

주일예배

주일 1부 오전 9:00 분당
주일 2부 오전 11:30 분당
주일 3부 오후 2:30 분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분당
주중예배
화요여성예배 화 오전 10:30 분당
수요성령집회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분당 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분당 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천

032. 437. 9686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지하2층 분당 / 2부: 오전 11시 30분
지하2층 분당 / 3부: 오후 2시 지하2층 분당
젊은이예배 오후 4시 지하2층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저녁부흥예배(매주 수요일 저녁 7:40)
일대일 양육자반 모집
일정: 10월 17일~2016년 1월 30일(총16주)
매주 토 7시~9시
강사: 박성은B 목사
장소: 3층 경찬홀
대상: 동반자반을 수료한자
회비: 20,000원
문의: 정민호 팀장(010-5254-4176)

강동

02. 475. 9686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래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래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 335. 9686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파워웨이브 / 11:00 / 3층 캔벨홀
대학청년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 5:20 / 1층 시안홀
수요오전여성예배 / 10:30 / 2층 아펜젤러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정기후원

2015.10.04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10년의 감동,
더 할수록 커지는 10년의 비전

정기후원
동참방법

- 2015년 10월 4일 정기후원의 날 후원약정서 작성
- give.cgntv.net 접속 후 '정기후원하기' 클릭
- 후원문의. 02-796-2243

Glob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토크 콘서트
힐링유
Healing You

"리얼 힐링의 모든 것!" INVITATION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UEST.

7시 - 존영 (배영호)

8시 - 숙명글로벌리아
가야금앙상블

• 일 시. 9월 7일(월) 오후 6:30
• 장 소. 상암동 제일아트홀
• 문 의. 02-3275-9456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healingu

Tv

프로그램



▷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9/7(월) 오전 11시 30분
28년간 한결같이 마을 주민들을 섬기며 샬레니즘의 영향이 강했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전북 원양교회 이야기입니다.
(출연: 아몬드/여성듀엣)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9/8(화) 오전 11시 30분
남과북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물댄동산교회 조요셉 목사를 통해 탈북민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델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 지구촌 반상회
-9/11(금) 오전 11시 30분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느낀 이웃 간의 '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9/6(주일)	9/7(월)	9/8(화)	9/9(수)	9/10(목)	9/11(금)	9/12(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사랑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햇빛 트리니티 성경강좌 - 사사시대와 우리시대 16:50 매트 찬들러의 야고보서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감동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화에 23:50 전세 프랭클린의 부흥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알바인온누리교회) 16: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임니까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건강한 교회 세미나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 콘서트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한국컴패션 북한사역 서밋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팀 켈러에게 예수를 묻다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랑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구약 인물 열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건강한 교회 세미나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산한복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19:0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30 힐송 컨퍼런스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